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⑮ 우두종(牛頭宗)의 창립자 법융(法融)



▶ 한줄 요약
당(唐) 초기에 활동한 우두 법융(牛頭法融, 594~657)은 중국선의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화선의 근원, 중화선 건립자는 우두"

중국선의 사상적 전개에 있어서 우두선(牛頭禪)은 보리 달마(菩提達摩)의 달마선과 동산법문(東山法門)을 세운 도신(道信)과는 또 다른 계통이라고 할 수 있다. 후대에 달마-혜가계, 그리고 도신-홍인의 동산법문, 또한 우두종을 창립한 우두 법융 등을 모두 하나의 법계로 연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세 가지 계통은 각각 다르게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심층적인 선사상(禪思想)에 있어서 서로 극명한 차별이 나타나며, 법맥도 후대에 조작한 흔적이 여실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唐) 초기에 활동한 우두 법융(牛頭法融, 594~657)은 중국선의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근현대에 학승으로 유명한 인순(印順) 법사가 찬술한 〈선종사상사〉에서 "중화선의 근원, 중화선의 건립자는 우두(牛頭)이다. 마땅히 동하(東夏, 中國)의 달마(達磨)는 바로 법융(法融)인 것이다"라고 평가한다. 다시 말해 조사선의 건립자는 달마나 혜능, 신회 등이 아니라 바로 법융이라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후기 조사선의 사상에서 본다면 또한 어느 정도 인정할 점도 있다고 하겠다. 그에 따라 법융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동산법문의 법맥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법융과 관련된 기록은 〈경덕전등록〉, 〈송고승전〉, 〈불조통기〉 등에 다양하게 실려 있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바로 도선(道宣)의 〈속고승전〉 권20에 실린 전기라고 할 수 있다. 도선(596~667)은 법융과 동시대에 활동하였으므로 그가 찬술한 전기는 후대에 이루어진 법맥의 조작이나 전설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법융은 속성이 위(韋)씨이고, 윤주(潤州) 연릉(延陵, 현 江蘇省 丹陽市) 출신이라고 한다. 법융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였으며, 19세에 한림원(翰林院)의 경전들을 대부분 열람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후에 그는 "유가와 도가 등의 세속의 글은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쌀겨나 쭉정이와 같구나. 반야(般若)의 지관(止觀)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을 구제할 만하다"라고 탄식하며 말하였다. 그 후에 법융은 결국 모산(茅山)에 들어가서 삼론종(三論宗)의 경(炅)법사를 스승으로 하여 출가하였다. 후에 대명(大明) 법사를 따르며 수년간 〈화엄경〉, 〈대품반야〉, 〈유마경〉, 〈법화경〉 등의 경전들을 수습하였으며, 대명 법사가 입적한 이후에 여러 지방을 유행하며 다양한 경론을 익혔지만, 마음에 증득함이 없자 "고요한 숲에서 마음을 모아 고요히 안거하였으며, 20년을 한결같이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한다.

정관(貞觀) 17년(643)에 법융은 금릉(金陵) 우두산(牛頭山) 유서사(幽栖寺)로 옮겨 북쪽 암벽 아래에 풀로 지붕을 엮은 선실을 지어서, "밤낮으로 사택(思擇)하여, 촌음도 어그러짐이 없었다"라고 하며, 이에 법융을 따르는 문도들이 100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영휘(永徽) 3년(652) 현령의 초청을 받아 건초사(建初寺)에 가서 〈대품반야경〉을 강의하였는데, 강의를 듣고자 1000여 명의 승려들이 청강하였다고 한다.

현경(顯慶) 원년(656)에 읍의 재상 소원선(蕭元善)이 건초사에 주석하기를 거듭 청하자 법융은 제자들을 불러 법을 부촉하고, "내가 다시는 이 산을 밟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떠나자 산의 새와 짐승들이 한 달이 넘도록 슬피 울기를 그치지 않았고, 암자 앞에 큰 오동나무 네 그루가 홀연히 시들었다고 한다. 다음 해 정사년(丁巳年) 윤(閏) 정월(正月) 23일 건초사에서 세수 64세, 법랍(法臘) 41세로 입적하였다.

법융의 저술은 〈주금강반야경(注金剛般若經)〉 1권, 〈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意)〉 1권, 〈유마경기(維摩經記)〉 2권, 〈유마경요략소(維摩經要略疏)〉 1권 등이 있다고 하지만 모두 전해지지 않으며, 〈송고승전〉 권10에 유칙(惟則)이 법융의 문집 3권의 서문을 썼다는 기록이 있지만, 역시 전해지지 않는다. 현재 〈경덕전등록〉 권30에 실린 〈우두산초조법융선사심명(牛頭山初祖法融禪師心銘)〉이 전해지고 있으며, 또한 종밀(宗密)의 〈원각경대소초(圓覺經大疏抄)〉에는 법융이 〈절관론(絶觀論)〉을 찬술했다는 기록이 보이고, 연수(延壽)의 〈종경록(宗鏡錄)〉 권97에 일단의 문구가 인용되고 있으며, 또한 돈황에서 출토된 문서 가운데 4본의 〈절관론〉 사본(寫本)이 존재한다.



당(唐) 초기에 활동한 우두 법융(牛頭法融, 594~657)은 중국선의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네이버지식백과 중국역대인물 초상화, 제공=한국인문고전연구소

인순, "조사선 건립자 바로 법융"
19세에 한림원 경전 대부분 열람
법융사상 장자사상과 결합되기도
우두선 정통성 위해 도신 제자로

〈전등록〉에 실린 법융의 〈심명〉은 "심성(心性)은 생하지 않는데, 어찌 알아보겠는가? 본래 일법(一法)도 없는데, 누가 단련함을 논하겠는가?"라고 시작된다. 이로부터 보자면, 법융은 심(心)과 경(境)이 본적(本寂)하다는 반야의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외경(外境)은 마음을 따라 사라지고, 마음은 외경을 따라 없어짐"이라는 문구로부터 무심(無心)과 무경(無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무심이어야 지킬 수 있고[無心可守], 무경이어야 관할 수 있음[無境可觀]"이며, 따라서 "관함을 끊고 지킴을 잊음[絶觀忘守]"인 것이다. 물론 이를 보다 분석한다면 상당히 복잡한 선사상을 도출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른바 '무심합도(無心合道)'로 귀결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법융의 사상은 이후 점차 〈장자(莊子)〉의 사상과 결합하게 된다. 여기에는 삼론학과 그의 영향을 받아서 출현한 성현영(成玄英)의 '중현학(重玄學)'의 융합이 두드러진다. 이를 상세히 논하는 것은 지면상 가능하지 않지만, 후대에 종밀이 〈선문사자승습도(禪門師資承襲圖)〉에서 "우두(牛頭)의 종지(宗旨)는 제법이 꿈같고 본래 일이 없으며, 심경(心境)이 본래 공적하여 이제 비로소 공적해짐이 아님을 체득함이다. …… 이미 본래 일이 없음을 요달하면 이치에 마땅히 자기를 잃고[喪己] 정을 잊음[忘情]이다. 정을 잊음[情忘]은 곧 고통의 원인이 끊어지고 일체의 고액(苦厄)을 제도한다. 이것이 정을 잊음으로 닦음을 삼는 것이다"라고 우두선을 평가하는 문구에서 엿볼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상기(喪己)', '망정(忘情)', '정망(情忘)' 등은 모두 〈장자〉의 용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융의 법계를 계승한 유칙의 전기에서는 "천지가 무물(無物)임에 나도 무물이다. 비록 무물이나 일찍이 물(物)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는 바로 성인은 그림자 같고 백성은 꿈같은데[如夢], 누가 나고 죽는가? 지인(至人)은 이로써 능히 홀로 비추고[獨照], 능히 만물의 주(主)가 되니, 내가 이를 알았다."(〈宋高僧傳〉卷10)라는 문구에서는 〈장자〉의 색채가 더욱 분명하다. 이러한 까닭에 우두종은 바로 중국선의 '장학화(莊學化)'를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역대로 우두 법융은 그 법계를 동산법문을 개창한 도신의 사법제자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당시의 사료(史料)를 고찰하면, 이러한 법계는 우두종에 귀의한 이화(李華, 715~766)가 찬술한 〈윤주학림사고경산대사비명(潤州鶴林寺故徑山大師碑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화는 천태종의 형계담연(荊溪湛然)과 밀교의 선무외(善無畏) 등으로부터 불교를 배웠지만, 만년에 법융의 5세손인 학림 현소(鶴林玄素, 668~752)에게 귀의했다. 그런데 당시는 도신-홍인의 동산법문이 불교계를 장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화가 자신이 귀의한 우두선의 초조인 법융을 도신의 사법제자로 연결시킨 것은 우두선에 정통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하겠다. 또한 이화가 설정한 법융의 법맥은 유우석(劉禹錫)의 〈우두산제일조융대사탑기(牛頭山第一祖融大師塔記)〉에 그대로 인용되고, 나아가 이길보(李吉甫)의 〈대각선사비명(大覺禪師碑銘)〉과 종밀의 〈선문사자승습도〉 등에 인용되면서 법융은 도신의 사법제자로 굳어졌다고 하겠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배후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문명을 구가하던 당조(唐朝)를 한순간에 쇠락하게 한 안사(安史)의 난(755~763)을 언급해야 한다. 안사의 난은 난이 발생한 장안과 낙양 등이 모두 초토화하였으며, 그 지역의 인구가 70%가 줄어들 정도로 폐해가 심각했고, 그에 따라 지식인들은 기존의 사상에 대하여 심각한 반성을 통하여 새로운 사상을 희구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민족적 긍지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유학에서는 '고문(古文)운동'이 발생하였고, 불교와 도교에서는 유불도 삼교합일의 기치를 세우게 되었다. 그런데 불교 가운데 민족적 정서에 가장 적합한 것은 바로 중국선이었고, 그 가운데 〈장자〉와 결합한 우두선은 더욱 관심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안사의 난 이후에 중앙정부의 최고위 관료들은 대부분 우두종에 귀의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회창법란(會昌法亂, 842~845)'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회창법란을 주도했던 인물은 바로 당시 승상의 지위에 있었던 이덕유(李德裕, 787~850)와 도사 조귀진(趙歸眞)으로, 그 가운데 이덕유는 바로 우두종에 깊이 귀의한 인물이다. 특히 그의 부친인 이길보는 중서시랑을 역임했었고, 조국공(趙國公)의 작위를 받은 고관으로 청량 징관(淸涼澄觀)이 〈화엄정요(華嚴正要)〉를 찬술해줄 정도로 화엄종에 귀의하였지만, 안사의 난 이후에 우두종에 귀의한 인물이다. 그에 따라 이덕유도 우두종에 귀의하였다.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회창법란은 이덕유가 기존의 모든 불교를 없애버리고 '우두종'을 부흥시키고자 한 것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회창법란 시기에 수많은 승려가 피살되었지만, 우두종 계열의 승려와 사찰은 거의 피해가 없었다고 하겠다. 더욱이 이화로부터 우두종의 법계가 동산법문에 연결됨으로 남종선 계통도 피해를 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법란 이후에는 우두선의 사상이 철저하게 삼투된 조사선이 중국불교를 장악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앞에서 언급한 인순 법사의 "중화선의 근원, 중화선의 건립자는 우두 법융"이라는 평가의 소이연을 짐작할 수 있으며, 우두 법융의 사상적 위상을 평가할 수 있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제1회 반려동물·식물사랑 글짓기 공모전

국내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입니다. 동물을 '가족'이나 '자기 자신'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 '펫미족(Pet+Me)'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산 이듬해부터 '동식물 천도재'를 올리고 있는 환경본찰(環境本刹) 강릉 현덕사가 '제1회 반려동물·식물사랑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나 자신이나 가족 못지않게 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의 잊지 못할 교감 순간, 함께 나누고픈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이별 순간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면서 만들고 나눈 사랑이야기를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 즐기는 법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족같이 지내고 있는 식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식물사랑 글짓기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주지 현 종

주제 및 형식 반려동물과 식물과 관련된 글이면 주제, 형식 모두 무관
분 량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한글포인트 10, A4용지 2매 내외) ※반려동물 및 식물 사진(사진 3장 이내)
지원자격 반려동물과 식물을 사랑하는 이는 누구나 참여 가능
공모기간 2022년 7월 1일 ~ 8월 31일 까지
접 수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hj569569@gmail.com)
수상자 발표 2022년 9월 20일(현덕사 홈페이지 공지 및 수상자 개별 연락)
시 상 식 2022년 10월 15일(토) 오전 11시 현덕사 '동·식물 천도재'에서 함께 진행
시 상 대상(1명,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1명, 상금 70만원), 우수상(2명, 상금 50만원씩), 장려상(3명, 상금 10만원씩)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특별부상으로 '반려동물 천도재' 무료 봉행 예정

※ 현덕사는 수상작품으로 책 제작, 전시, 영상 제작 등으로 향후 활용할 예정이며,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만월산 현 덕 사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싸리골길 170(삼산리, 현덕사) 문의 (033)661-5878 www.hyundeoksa.or.kr